

4.13 선거 RUN·RUN·RUN

김성주 후보, 간호법·제도 발전 기여 감사패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전주 병)가 지난 25일 전주 트윈호텔에서 열린 전북간호사회(회장 신화자) 제67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한 간호 관련 법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 후보 측은 "국민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의료법 개정안은 간병인 또는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간호·간병서비스 관련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간호계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까지 총 400개로 확대되며, 해당 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는 기존 1일 8만원 정도에서 2만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며 "병동별 1병실 배치되었던 간호·간병 인력을 최대 4명까지 확대하여 일자리도 최대 1800여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과정에 간호·간병 인력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최형재 후보 "경제정책 실패 현 정권 심판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국회의원 후보(전주을)는 "4.13 총선에서 경제정책에 실패한 박근혜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최 후보는 지난 25일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 안전이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 안전이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미 2012년 대선때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하여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5월 이전을 완료했고,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0월 완공되어 이전해된 상황이다"며 "기금운용본부와 연계된 위탁운용사가 국내외에 300여개에 이르고 이들 위탁운용사들도 전복본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전복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아 연기금 관리 특화지역으로 발전시켜, 기금전문인력의 교류와 금융타운 설치,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승격 호텔과 컨벤션 건설 등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김윤태 후보 선대위 주요 직책 확정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국회의원 후보(군산)는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직책을 확정하고 조직 구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김윤태 후보는 지난 25일 선대위 내부 회의를 열고 선대위원장에 김철규 초대 전북도의회 의장, 김용화 전 전북도의회 의장 조현식 전 전북도의회 의원 등 3 명을 임명했다.

또 강금식 전 국회의원과 강선국 당 원로 등 7 명을 상임 고문단에 선임했다.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단에 전효기 전 전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30여명의 직능단체 출신 인사들을 구성했다.

이밖에 전략본부장은 최재태 전 전북도의회 의원, 유세본부장은 박재만 전북도의회 의원, 여성본부장은 신영자 군산시의회 의원, 지역본부장은 김경구, 김중식, 김중숙, 강성욱 군산시의회 의원단이 담당자로 했으며, 읍면동 지방자치위원장단은 추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26일 나운동 334번지(공단대로 410)2층에 마련된 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영선 최재성 의원이 영상을 통해 지지와 격려 메시지를 보냈으며,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철희 비례대표 후보가 직접 개소식에 참석해 찬조연설을 했다. /특별취재반

김춘진 후보 "206 항공대대 이전 반드시 재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김제·부안)는 26일 백구면 항공대대 이전사업과 관련 오는 4월4 일로 예정된 토지보상위원회 개최가 4·13 총선 이후로 연기됐음을 전북도청으로부터 답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5일 항공대대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 사무실에서 정국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206 항공대대 이전이 이번 총선과 맞물려 백구면 주민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항공대대 이전문제는 총선 이후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하며, 김제를 포함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바가 있다. /특별취재반

후보자 경쟁 치열·지역주의 심화

Report 총선 중요 격전지 집중분석-③남원임실순창... 그리고 완주진무장

후보자 가장 많아... 남원임실순창

박희승·강동원 치열한 접전 속 국민의당 이용호·민중 오은미 무소속 오철기 후보 등 가세

임실·순창·남원(이하 임·순·남)과 완주·진안·무주·장수(이하 완·진·무·장) 선거구는 앞서 본보에서 개재한 집중감찰지역(24일), 익산감찰(25일)지역과 함께 전북지역 최대 격전지로 손꼽힌다. 전북 선거 최대 경쟁을 현역의원들의 탈락에 의한 선거 과열구도, 지역주의 심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임·순·남, 완·진·무·장 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선거 과열·혼란 지역으로 지정한 정도이다.

이에 본보는 집중분석 3회로 나눠 부열의 한 중심에서 있으면서 복잡한 선거구도를 보이고 있는 임·순·남, 완·진·무·장 지역을 분석해본다.

▲임실·순창·남원

제20대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 지역 등록자는 총 8명(경쟁률 8:1)이다. 총 47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47:1의 전북 선거 경쟁률 대비 2배에 육박하는 임·순·남 지역은 예비후보 등록시부터 총 12명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격전지로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북지역 대부분의 선거구도가 1표2명의 3표전이나 2표 대 2표의 2표 구도 속에 여당과 무소속이 틈새를 노리는 구도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1무소속·2표가 대세인 가운데 여당과 다른 무소속 후보들이 자웅을 겨루는 모양새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현역 컷오프에서 시작한다. 현역의원인 강동원 후보(무소속)가 컷오프에 반발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게되고 더민주당은 '인제영입 10%' 박희승 후보를 전략 공천해 이 지역 패권을 차지하겠다고 나서지만 한 줄기 거

'지역주의'로 골머리... 완주진무장

진무장 안호영·완주 임정엽 등 공천 과정서 흠어진 지지세 결집 소지역주의 극복이 최대 과제

위원장인 임종천 후보와 전북여성농민회 부회장인 민중연향당 오은미 후보도 서브의 편에서 정세를 강조하며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 현 전주대학 교 총 동맹 부회장인 무소속 오철기 후보와 (주)홍조건설 대표이사 지내고 있는 무소속 방경태 후보도 복잡한 선거 구도에 뛰어들어 그들만의 세력을 모으고 있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완·진·무·장 지역은 전북 지역 선거 구도의 대세인 野 대 野의 대세 속에 여당과 무소속이 지역 패권을 위해 겨루는 전북 지역의 일반적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만의 특색(?)적인 모습이 완·진·무·장 선거구를 전북 지역 최대 격전지로 만들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흠어진 지지세 결집과 소지역주의의 극복이 바로 그것이다. 이 지역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더민주 안호영 후보와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의 결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대선점을 치렀던 경선 후보들의 향후 행보이다.

이 지역 野 대 野의 대세를 그리고 있는 인물은 단연 안 후보와 임 후보이다. 이 둘은 모두 당당히 '인심번호'에 의한 경선을 통해 후보에 오른 인물이

다. 예선전에서 방법의 차이로 공천권을 받아간 안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의 싸움에서 힘이 딸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내 지지세를 결집해야 하는 입장이다. 진안 출신인 안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당내 조직력을 통해 완주 지역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당내 갈등 통합'과 이를 통한 '소지역주의' 극복이 최대 과제인 것이다. 현재 지난 경선 관련 자웅을 다했던 세력은 결과에는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 후보에 대한 지지입장은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런 상황은 임 후보도 마찬가지이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사적 부적격' 논란으로 난항을 겪었던 임 후보는 당내 갈등의 봉합과 극복을 최우선 선거 전략으로 나아가 한다는 게 정가 중론이다. 하지만 현재 경선 과정 불거진 불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잠재워진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예선전에 패배한 세력의 인 후보 지지여부에 대해서는 가터부터 말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 따라서 앞으로 임 후보가 얼마나 메끄러운 당내 갈등 봉합을 이루는 가 하는 문제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새로 개척하는 진·무·장 표심에서 '중재(?)'을 이루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신제봉 후보를 일찌감치 공천했다. 그는 진안생원초등학교(현 맥운초등학교)를 졸업한 진안 출신으로 현 총·교·예 실천운동본부 전북연합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야당 우세 지역의 특구구에서 약진코루 하며 여당에 결집에 힘 쏟고 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내 민경선 전 대구한의대 교수는 완주 용진 출신이다. 그는 원광대를 졸업하고 전국대학생 필연맹 회장을 역임하는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스포츠인프라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별취재반



우는 아이 불에 뽀뽀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생동동 패밀리랜드를 방문해 울음을 터트린 어린이 불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김현철 도의원, 더민주 복당

전북도의회 김현철 도의원(진안)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의 불통과 독선을 막고 잃어버린 4년을 되찾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맞서 서민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

주주의 회복을 위한 길은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 60년 전통의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후보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총선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전북정치를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새누리 유재길 선거구 '무공천' 형제 국회의원 탄생 '물건너가'

형제 국회의원 탄생이 물 건너 갔다. (본보 3월 17일자 3면) 국민의당 유성영 의원(정읍고창)의 친동생인 새누리당 유재길 후보(서울은평) 지역구가 최종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물건너가 됐다. 유재길 후보는 지난 15일 새누리당 공관 관리위원회의 발표에 의해 5선인 이재오 의원을 누르고 은평에 단수추천 됐다. 하지만 지난 2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단수추천된 대구 동을(이재만)과 서울 은평(유재길)·송파(유영하) 선거구를 무공천하기로 했다.

세 후보는 후보등록 시한까지 넘겨 제20대 총선 본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별취재반

새누리 전북도당 9명 후보로 총선 치러

당초 10명의 후보를 내세우려던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9명의 후보로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이로써 정읍고창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와 국민의당 유성영 후보, 무소속 이강수·김민균후보 등 모두 4명이 후보로 나섰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지난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도내 10개 선거구에 모두 공천 후보자를 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읍고창 1곳에서 공천자의 개인사정으로 후보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당은 "해당 지역에서 후보자 능력에 따른 불연함과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국민의당, 구태정치 표본"

더민주 도당 김갑봉 사무처장 "새정치 하겠다는 후보자들 거의 없이 구 정치인들 다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갑봉 사무처장은 "국민의당이야말로 구태정치의 표본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25일 전북도당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은 10명의 후보들 중 8명이 정치신인들로 채워졌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하겠다는 후보들이 거의 없다. 새로운

피 수월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구 정치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것에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제라도 유권자들은 '후보들을 꼼꼼히 따져'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정치적 안목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더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의 공세적 모드라서 눈길을 끈다.

현재 판세가 한미더로 예측불허이고 자칫 총선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20대 총선 승리를 뒷받침해야 하는 등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측면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취재반